

중국 슈퍼리그 '원조 명장' 이장수, 선전 FC 호령

(중국 선전 FC 축구감독)



이장수 현축구감독(중국 선전 FC)

~1986 유공축구팀 감독
1987~호남대학교 축구팀 감독
1988~일화축구단 트레이너
1992~일화축구단 코치
1996~일화축구단 감독
1998~2001 충칭 리판(중국) 감독
2001~2003.12 칭다오 피자우(중국) 감독
2003.12~2004.12 전남 드래곤즈 감독
2005.1~FC 서울 감독
2006.12~2009.9 베이징 귀안(중국) 감독
2010.3~2012.5 광저우 에버그란데 FC(중국) 감독
2014.7~2014.11 칭두 타옌청(중국) 감독
2016.5~2017.4 칭춘 야타이(중국) 감독
2022.2~선전 FC(중국) 감독

대한축구협회

중국의 프로축구단 슈퍼리그에 소속된 선전 FC를 이끄는 이장수 감독은 중국에서 성공한 외국인 감독 중 한 명이다.

경상남도 함안 태생으로 영남상고(현 부산정보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프로 선수로 새한자동차(현 부산아이파크), 상무, 유공코끼리(현 제주유나이티드) 등에서 뛰었다.

선수로서 활약은 눈에 띄진 않았지만 1987년 호남대 감독으로 지도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인생이 변화가 감지됐다. 이어 성남 일화 감독으로 경력을 쌓고 더 많은 축구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1996년 일화 감독을 그만두고 1997년 브라질로 축구 유학을 떠났다.

브라질 연수를 마친 뒤 중국행을 고심했다. 주위 반대와 중국에서 실패하면 영원히 한국 무대에 복귀할 수 없다는 두려움도 앞섰지만 마음을 잡고 새로운 무대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다.



라이프야샹차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397

중국으로 떠나 1998년 중국 프로팀 충칭 리판 감독을 맡으면서 인생을 변화시킨 화려한 중국 경력이 시작됐다.

부임 당시 하위권에 머물던 충칭 리판을 2000년 첫 FA컵 우승으로 이끌며 '충칭의 별'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해 중국 프로 축구 최우수 감독으로 선정됐다.

2002년에는 칭다오 피자우 감독으로 두 번째 FA컵 우승을 달성하며 중국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겼다. FA컵 2회 우승 등 중

국에서 활동이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돼 2000년 12월 KBS2 인간극장 '충칭의 별' 편에 소개되기도 했다.

또 2002년 네덜란드 국적의 명장 아리에 한 감독과 함께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사령탑 물망에 오르며 우리나라 감독의 위상을 높였다. 아쉽게도 아리에 한이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해외 대표팀의 사령탑으로 거론만도 국내 축구계의 큰 성과였다.

2003년 12월 전남 드래곤즈 감독을 맡아 K리그로 복귀했다. 2004년 전-후반기 통합 3위에 올려놓는 등 성과를 냈지만 구단 내에서는 용병 비리 의혹이 불거지며 어려움에 닥쳤다.

구단은 이 감독이 비리 혐의에 가담을 의심해 관계가 악화됐다. 결국 전남은 사실관계와 상관없이 2004년 12월 열린 수원과 4강 플레이오프 다음날 곧바로 해임했다.

마침내 이 감독은 비리 혐의를 벗었다. 억울함으로 절망에 빠진 적도 있지만 FC 서울의 제의로 다시 감독직을 이어갔다. 당시 그는 "팬들을 위해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할 것이다. 순간적인 압박으로 불을 빼앗고 빠른 패스연결의 공격을 선수들에게 주문하겠다"고 자신의 축구철학을 밝혔다. 2005~2006 두 시즌간 FC 서울을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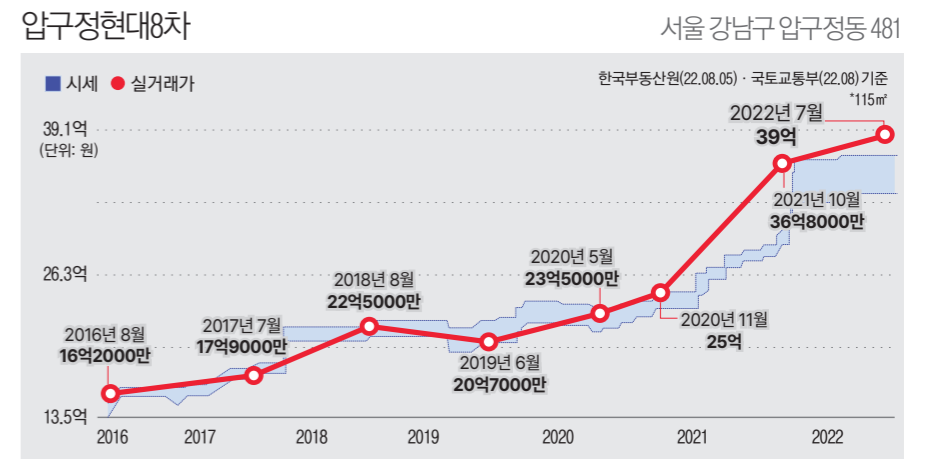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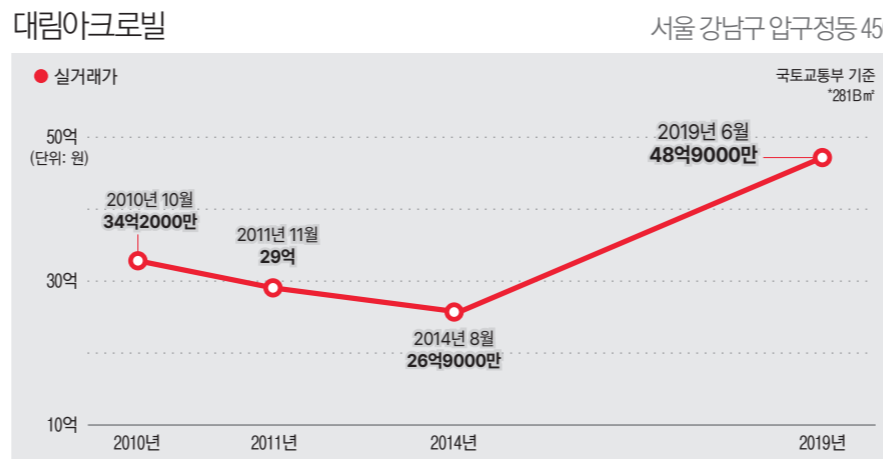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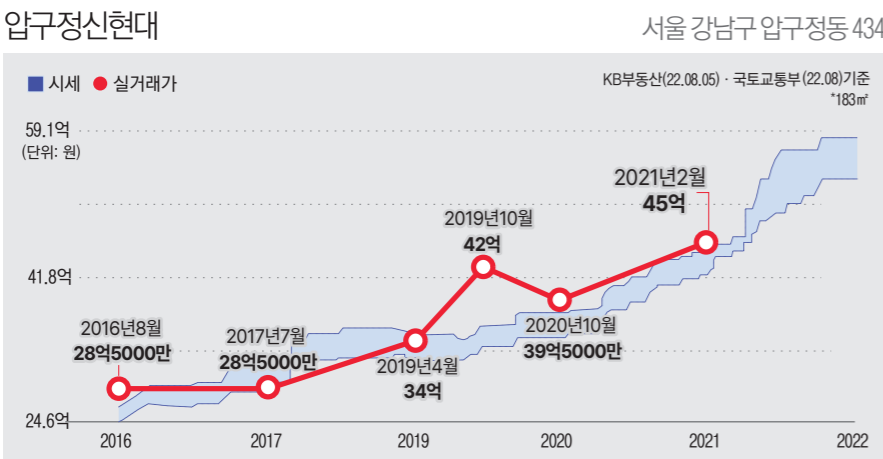
FC 서울에서 K리그1 4위, 리그컵 우승, FA컵 8강 등의 성적을 낸 뒤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 베이징 귀안, 광저우 에버그란데, 칭두 타옌청, 칭춘 야타이 등 많은 중국 클럽을 이끌며 명성을 떨쳤다.

한편 이장수 감독은 여전히 중국에서 잘 나가는 지도자임을 입증하며 올해 2월 선전 FC 감독에 3년 계약으로 선임됐다.

선임과 관련 중국 매체 시나스포츠는 "이장수 감독은 간간하고 철저하기로 유명하다. 우리는 그를 '철의 미남'이라고

부른다"며 "그는 중국 팀 감독을 오래 맡은 경험 덕분에 중국 환경에 익숙하고 중국 축구가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이 감독을 데려간 선전은 장차 크게 발전하는 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

했다. 선전 FC 감독 부임 6개월을 맞은 중국 슈퍼리그 '원조 명장' 이장수 감독이 중국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나갈 지 주목된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백인호 전 YTN 사장



듬해 2004년 6월 광주일보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광주일보를 떠난 후에는 리빙TV 대표이사 사장, 프라임방송 대표이사 사장을 지냈다. 이후 중앙대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YTN 1300일 드라마' '행복터널 판매소'가 있다.



백인호 전 YTN 사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나와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중앙대 대학원과 고려대 대학원에서 각각 석사 학위를 받았다. 백 전 사장은 전남 장성 출신으로 1965년 매일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사회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산업부, 경제부, 경정부 부장을 거쳐 편집국장, 조사자료실 실장, 데이타뱅크 국장 등 여러 직책을 지냈다. 1993년 매일경제 TV로 자리를 옮겨 대표이사 전무이사, 대표이사 부사장 및 고문을 맡은 뒤 1999년부터 2003년까지 YTN 사장을 역임했다. 그해 11월부터 광주일보 고문을 맡고 이

김희애 현 탤런트



상 '영웅 돌아오다' '우아한 거짓말' '사라진 밤' '윤희에게' 등에 출연하면서 최고 여배우로 자리매김했다. 디스커버리 채널 코리아, SKY채널이 공동 제작한 시네마틱 로드무비 '잠적'에 출연해 2박 3일간 여행하면서 자유로운 일상으로 시청자들에게 힐링을 선사했다.



김희애는 중앙대 연극영화학과를 졸업하고 동 신문방송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82년 해화여고 1학년 때 의류 CF모델로 데뷔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 이듬해 영화 '스무해 첫겨울'로 데뷔한 뒤 1986년 KBS 드라마 '여심'의 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당시 스무 살의 신인임에도 한 여인의 인생을 10대부터 60대까지 훌륭히 소화하며 하이틴 스타로 급부상했다. 이후 드라마 '산 너머 저쪽' '분노의 왕국' '아들과 딸' '폭풍의 계절' '하나뿐인 당신' '완전한 사랑' '부모님 전상서' '밀회' '부부의 세계' 등과 영화 '불의 회

김석화 현 분당차병원 차심미의학연구원 원장



한 명이다. 1996년 '동그라미회'를 결성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얼굴기형 환자를 무료 수술해주고 있다. 2020년 9월 차심미의학연구원 원장으로 부임해 "고위험 산모와 태아치료를 집중하고 있는 차병원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외과 의료진과 협진으로 세계적인 고위험 태아치료 센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석화 분당차병원 차 심미의학연구원 원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미국 뉴욕대에서 안면기형 수술을 전공했다. 사지연장 치료로 잘 알려진 일리자르프 수술법을 안면기형에 국내 최초로 적용해 화제를 모았다. 또한 안면기형 환자의 뼈를 2배 이상 빨리 늘리는 수술법, 구순구개열 환자를 한번의 수술로 교정하는 치료법을 개발해 국내 소아성형 분야를 개척했다. 얼굴 반쪽이 덜 자란 반안면왜소증 및 뇌수술 후 얼굴 성형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치료한 명실상부 얼굴 기형 치료의 세계 권위자 중



맛깔나는 우리동네 부동산

일제강점기 일본인 귀속재산 520만㎡ 국유화

전국

조달청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2012년부터 진행해온 귀속재산 국유화 사업의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도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15일 밝혔다.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및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토지로 광복 후 7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일부가 국유화되지 못하고 남아 있다.

조달청은 '재조선 일본인명 자료집'과 대조 등을 통해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5만2059필지를 선정해 조사를 시작했으며 7월말 기준 5만1986필지의 조사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6532필지(504만㎡, 여의도 1.7배, 공시지가 1500억원)의 토지를 국유화했고 추가로 974필지도 국유화를 진행 중이다.

또 귀속재산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유화한 은닉재산에 대한 국유화 소송도 진행해 지금까지 163필지 16만㎡의 토지를 국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7	합계
필지	189	905	908	464	598	441	393	1482	1005	310	6695
면적	219	721	380	293	561	172	422	1378	954	100	5200
금액*	9635	2만5711	2만5000	7191	1만3076	6500	1만5132	2만5399	1만4826	8679	15만2149

유화했다. 귀속재산 조사로 일제 강점기 동안 국토 곳곳에 남긴 흔적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하고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 국토부, 지자체 등과 함께 공적장부상 일본식 명의 부동산 10만4000여 필지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달청은 이 중 귀속재산 가능성이 있는 3만3875필지는 심층 조사를 하고 있다. 7월말 기준 1만8467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귀속재산으로 확인된 347필지를 국유화하는 중이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일제 토지조사사업 때 사정(査定)된 후 현재까지 남아 있는 사정토지의 소유권을 정비하는 사업을 시작해 297필지를 국유화에 착수했다.

이종욱 청장은 "귀속재산 국유화는 국가자산을 증대하고 우리나라의 토지주권을 바로세우기 위한 정부의 당연한 노력이다"며 "귀속·은닉재산 신고장구를 항상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일제 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속해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주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

울진, 전국 최초 거점형 마리나항만 준공

경상북도 울진군

경상북도는 12일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일원에서 '후포마리나항 준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손병복 울진군수,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유관기관 단체장, 지역주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행사 뒤에 후포마리나에서 울릉도와 독도를 거쳐 돌아오는 코리아컵국제요트대회가 오늘까지 개최된다.

후포마리나항은 해수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에 선정된 전국 6곳 중 제일 먼저 준공됐다.

307선석 규모의 초현대식 계류시설과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수리·보관시설 등 세계 어느 마리나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경북의 마리나 계류시설은 8개소 총 182선석이나 후포마리나항(307선석)과 연말에 준공 예정인



준공된 후포마리나항.

경상북도

현상강마리나 74선석을 합하면 10개소 563선석으로 늘어나게 된다.

경상북도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 행정부지사는 "경북이 국내 최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보유함으로써 해양

레저관광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됐다"며 "앞으로 마리나 리조트 유치 등 후포마리나항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마리나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도현 기자 dhjung@skyedaily.com